

사자의 꿀 읽은이

세계와 세계를 이어내는 일

“변변치 못한 야경이 시야에서 완전히 물러날 무렵, 무사히 이륙해 안전벨트를 풀어도 좋다는 사인을 보고서야 조금 진정이 되었고, 택시 기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다시금 떠올랐다. 어떤 세계가 끝나고 다른 세계가 시작되는 이 순간 나는, 공중에 있다……라는 감각. 내가 미지의 대륙에 발을 디딜 새벽이 마친 어떤 세계의 첫날 새벽이기도 하다…… 라는 근사한 우연. 세계의 주인공이 된 듯했다.”

박서련, 『더 션리 클럽』

평일의 10:30~15:30.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

한 시간. 정확히는 혼자 아니다. 산책을 시켜주어야 하는 강아지, 이따금 놀아주고 식사를 챙겨줘야 하는 고양이가 있다. 집 곳곳에는 아침에 급히 먹었던 흔적의 치워야 하는 접시들, 저녁 식사 재료가 되려고 내 손을 기다리는 식재료들, 세탁기로 들어가겠다는 빨래, 어서 건조대에서

꺼내 옷장으로 접어 보내 달라는 옷들, 내 타이핑을 기다리는 노트북의 워드파일들, 그리고 바닥 구석의 먼지들... 나는 한시도 혼자일 때가 없다.

2018년 10월, 나는 엄마가 되어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지금껏 내가 한 일 중 가장 힘든 것이었지만, 아이라는 또 하나의 신비로운 세계가 늘 곁에 있다는 것은 그 가장 힘든 일도 기꺼이 껴안는 힘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엄마로서 해야 하는 수많은 역할 중 느긋하게 책을 읽는 애서가의 모습은 없었다. 물론 책을 전혀 읽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동화책과 육아서를 탐닉했다. 하지만 이따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갖는 독서에서 충족한 서사나 인과관계가 중요한 소설과 인문서는 너무 높은 허들이었다. 아가사와 미술관 관계자, 그리고 전시 공간의 초록 의자가 나를 호주의 ‘더 션리 클럽’으로 보내주기 전까지는 말이다.

수요일 독자

조은비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현대미술 큐레이터로 최근 전시 《우연을 기대》(d/p, 2022)를 기획했다.

일라이 클레어, 전혜은, 제이 율김, 『망명과 자궁심』, 서울: 현실문화, 2020. 김기남 외 12명, 심정명 율김, 『난민, 난민화 되는 삶』, 서울: 갈무리, 2020. 채효정, 『먼지의 말』, 서울: 포도밭출판사, 2021. 사이토 고헤이, 김영현 율김,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기후 위기 시대의 자본론』, 서울:다다서재, 2021. 박서련, 『더 션리 클럽』, 서울: 민음사, 2020.

매 금요일, 약 4시간 (모두 합쳐 약 30여 시간) 동안 나는 몇 년을 버리기만 하고 읽지 못했던 미술이론 전공 서적, 현업인 에디터로서 필요한 실용서, 지구 위기 관련 에세이와 기초과학서, 자신의 길을 당당히 펼쳐나가는 한 여성의 자전적 이야기, 평소 흥미하던 에밀리 디킨슨과 줌파 라히리의 글을 읽으며 각 책의 저자들은 물론, 책 속에서 더 많은 사람과 세계와 시간을 만났다.

〈사자의 꿀〉이 끝난 지금,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 몇십 년 후, 내 삶을 돌아보며 반짝이는 순간을 떠올리는 중에는, 매주 금요일 바쁜 걸음으로 미술관에 들어와 초록

의자에 파묻혀 온전히 나와 책, 이 둘만이 조용히 대화했던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책을 통해 나를 더욱 나답도록 소중한 기회를 준 아가사와 미술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경희

아가사가 존 카더로부터 건네받은 마음은 진득한 꿀처럼 흘러내려, 책등(spine)의 나무줄기(codex)는 여섯 개의 흰 책장으로, 책임은 초록 의자와 양털 러그로 펼쳐지게 되었다. 화면 너머, 아가사로부터 오롯한 읽기의 시간을 선물받은 독자들은 일주일 중 하루, 네 시간을 전시장에서 보냈다.

화요일 독자

김무영은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며 영상 매체와 퍼포먼스를 다룬다.

마크그리트 유르스나르, 광광수 율김,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 1』, 서울: 민음사, 2008. 이반 쳉, 『자신감/기준』, 베를린: TLTRPreß, 2021. 빅토르 I.스토이치타, 이윤희 율김, 『그림자의 짧은 역사』, 서울: 현실문화, 2006. 박서련, 『더 션리 클럽』, 서울: 민음사, 2020.

얼핏 그들은 책 속의 문장을 음미하며, 낭만을 만끽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 시간은 그리 고요하게 흐르지 않았다. 그들의 독서는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일을 동반했다. 낯선 시선, 소음, 때때로 쏟아지는 졸음과 지루함. 이같은 방지턱을 넘나드는 와중에도 그들의 손엔 여전히 책이 들려있었다. 끝없는 마침표가 이끄는 해매임에, 익숙한듯 따라나선 그들은 왔던 길을 돌아나오는 방법 또한 알고 있었다.

서울에서 진행된 〈사자의 꿀〉의 시작점으로서, 독자들이 선물받은 소설 속의 주인공, 설희처럼. 그들은 공공장소와 사적인 공간 사이를 유랑하며, ‘혼자’와 ‘함께’ 사이를 오가며 읽기를 수행했고, 나는 벌어진 틈새에 서서 그들에게 ‘무사히 이륙해 안전벨트를 풀어도 좋다는 사인’을 보냈다. 물리적인 거리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이곳에 올 수 없었던 아가사로부터 위임받은 마음을 간직한 채, 사전 워크숍을 꾸리고 문자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계속해서 수신호를 띄우고자 노력했다. 책의 등줄기와 몸을 타고 흐르는 읽기의 타래가, 아가사와 독자들이 서로에게 전하는 마음이 바래지 않기를 바라며.

목요일 독자

배해륜은 극작가이며, ‘읽음’이 무척이나 적극적인 행위임을 세삼 감각하게 된 독자이다.

임솔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 서울: 문학과지성사, 2021. 제니퍼 마이클 헛트, 허진 율김, 『살아야 할 이유: 자존의 철학』, 서울: 열린책들, 2014. 신해옥, 『창밖을 본다』, 서울: 문학과지성사, 2021. 룰루 밀러, 정지인 율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실, 사랑 그리고 숨어 있는 삶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 서울: 곰출판, 2021. 김숨, 『L의 운동화』, 서울: 민음사, 2016. 윤고은, 『밤의 여행자들』, 서울: 민음사, 2013. 목정원,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서울: 아침달, 2021. 이보람 외 3명, 『여자는 울지 않는다』, 서울: 제철소, 2019. 박서련 외 7명, 무지개책갈피 엮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지』, 파주: 돌베개, 2021. 켄지 요시노, 김현경, 한빛나 율김, 『커버링: 민권을 파괴하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폭력』, 서울: 민음사, 2017. 최진영, 『일주일』, 서울: 자음과 모음, 2021. 박서련, 『더 션리 클럽』, 서울: 민음사, 2020.

우리는 책이라는 유동적인 사물을 탈 것 삼아, 아가사의 세계와 설희의 세계, 또는 각자가 여행한 책 속 화자들의 세계를 오가며 느슨하게 연결되었다. 이 결말 없는 이야기기 다른 곳에서도 세계와 세계를 이어내는 교량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미지, 공공프로그램 매니저

최초제작지원
«메이킹 아트 퍼블릭: 카더 공공미술 프로젝트 50주년»
제작지원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UN/LEARNING AUSTRALIA»

카더 공공미술 프로젝트 뉴사우스웨일스미술관
2019년 9월 7일 - 2020년 2월 16일
서울시립미술관 & 아트스페이스 시드니
2021년 12월 14일 - 2022년 3월 6일

후원
기획팀
공공프로그램 매니저

서울시립미술관 & 아트스페이스 시드니
서울시립미술관(박가희, 박유진, 김관희)
아트스페이스 시드니(알렉시 글라스-칸토르, 미셸 뉴튼, 조하나 베어)
이미지

언더스터디 독자

이소연은 시인이자 페미니스트이며 사회혁신 활동가이기도 한 독자이다.

강석희,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서울: 창비교육, 2021. 공현진 외 5명, 『아직 오지 않은 시』, 서울: 소명출판, 2022. 유현아, 『아무나 회사원, 그밖에 여러분』, 서울: 애지, 2013. 마크 헤이머, 황유원 율김, 『두더지 잡기: 노년의 정원사가 자연에서 배운 것들』, 서울: 카라칼, 2021. 김은지, 『고구마와 고마워는 두 글자나 같네』, 서울: 걷는사람, 2019. 안드레 애치먼, 정지현 율김,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서울: 잔, 2019. 박서련, 『더 션리 클럽』, 서울: 민음사, 2020.

본격적인 독자

12월 17일 나는 독자가 되었다. 독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아가사 덕분에 그야말로 본격적인 독자가 되었다. 개인적으로 바쁜 시기였지만, 언더스터디였던 나는 각 요일의 독자가 부탁을 하면 “제가 갈게요.”하고 투입되지 않을 수 없었다. 초록색 의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으로 나를 빨아들었기 때문이다. 초록색 의자에 의지하여 발현되는 그 오묘하고도 신비로운 감각들은 이전의 독서에 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었다.

내가 읽은 책들은 여섯 독자들의 선반 여기 저기에 섞여들었다. 마치 파도가 만들어낸 흰 포말이 다시 바닷물 속으로 말려들 듯이 나는 그들의 자리에 스며들었다.

‘독자’라는 역할을 부여받고 대상화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나의 결론은 오히려 더 적극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독서 중인 나를 바라봤다. 독서에 집중하지 못하는 순간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내 책 속 세계로 빠져들었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간절히

바랐다. 관람객들이 내가 침투한 세계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하길 바랐다. 타인의 시선을 견디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태도의 전환만이 대상화의 문제를 넘어서 의미를 발생시키는지도 모른다. 나는 책을 읽고 관객은 나를 읽고 그림으로써 전체를 읽게 되는 순간의 짜릿함. 도슨트가 매일같이 책을 읽는 나를 평소 에 책을 거의 읽지 못하는 사람으로 잘못 소개할 때조차도 즐거웠다. (도슨트는 내가 독자를 대신한 언더스터디라는 점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계획 하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만큼 아가사의 작품 〈사자의 꿀〉은 무한히 자유로웠다. 내가 관람객들에게 나를 상상할 자유를 준 것과 마찬가지로 아가사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구성된 초록색 의자와 여섯 개의 선반, 출발을 알리는 책 한 권을 주었다. 그 외엔 어떤 관섭도 없었다. 오로지 먼 곳에서 보내온 초록색의 양말이 그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책을 읽는 내내 당신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고백한다. 고맙다.

이소연

RE: <사자의 꿀>이 지닌 불안정성에 대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독자와 언더스터디 독자 여러분께,

저는 여러분께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UN/LEARNING AUSTRALIA>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제 작업 <사자의 꿀>을 위한 독서에 함께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은 공공장소에서 각자 선택한 책들을 읽어주셨고, 이제 이 '읽은이'는 프로젝트와 여러분의 독서를 기록하는 하나의 문서가 됩니다. 이 작업은 지난 2019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미술관에서 이루어진 전시 <메이킹 아트 퍼블릭 Making Art Public>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일한 작업을 다르게 선보였던 두 번의 경험은 커미셔너, 예산, 여러분과 같은 독자의 사람들, 책, 시간, 책장, 문장, 단어, 글자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독서를 해야했던 여러분의 노동 등 다양하면서도 같은 여러 요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작업이 진행된 물리적인 장소였던 전시장 혹은 기관은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특수성에서 중립적인 혹은 어떠한 구매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작업을 위한 일종의 틀 혹은 지지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물질, 맥락과 같은 이러한 구성 요소들 사이를 순환하고 유예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물질, 즉 매개체(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에너지 전달이 가능하게 하는 물질)입니다. 이는 작품 옆에 부착된 교훈적인 설명과 덜 물질적이거나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들과 같은 여러 요소들이 결합된 복잡한 혼합물입니다. 이 물질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물질이 중립적이거나 안정적이지 않으며 굉장히 끈적끈적하다는 점입니다!

여러 책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는 작가의 의도, 표지 작업, 서사적 단계, 극의 절정, 인물 전개, 중요한 챗터, 결말, 그리고 이외의 문학적 전통(작업의 조건 속에서 함께 읽어내었던 것들)과 같은 요소들도 이 물질에 해당합니다. 이는 관계 안에서 우연히 형성되는 데이지 체인파도 같은, 책과 책 사이의 관계 그 자체이자 여러분이 선택한 책들, 여러분의 하루, 한 주 혹은 매 달마다의 분위기, 이 작업이 축복 혹은 저주와도 같다는 느낌, 작업 내에서의 노동에 대한 합의들, 기억들, 미술관 의자에 앉아있던 신체에 저장된 기억, 실행을 위한 이메일들, 작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던 순간들을 통해 그려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복합적인 초상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은 작업이 시작된 2019년의 출발점과 역사, 일련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 조건 하에 작업이 점차 형성되던 과정, 제가 2019년에 이 작업을 시작했던 이유와 2021년에 작업이 재제작 되었던 이유 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작품에 대한 제 자신의 불안과 긴장을 끌어당기고 보존하며(심지어는 되풀이하며) 다음과 같은 결정들, 즉 작품이 곧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 잘못된 인식 혹은 단순히 독자와 관객 모두에 대한 자극을 감당할 수 있는 포용력과 같은 모든 것을 유예시킵니다.

동시에 이 불안정한 매개체이자 물질은 작업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의 새로운 맥락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며 역설적으로 물질적인 전환없이는 다르게 존재할 수 없도록 그 가능성을 무력화시킵니다. 독자들에게 위임되는 작업(노동과 작업의 결의 형식으로)은 작업 고유의 논리이며 이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위임은 작업이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동시에 보편적인 작업의 구성 요소를 유보하는 힘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께 작업의 제작과 재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작업이 지닌 가변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지만 저자성과 책임은 제게 남겨집니다. <사자의 꿀>의 경우, 맥락을 이루는 모든 요소와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이르는 매개체가 그 자체로 불안정하며 일시적이지요.

한국에서 이루어진 작업의 새로운 맥락과 여정은 일정부분 저와 물리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거리감이 작업이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예측불가능성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불안정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 의도에 따라 좀 위크숍과 이메일 회신에서의 '어조'를 고려하여 여러분을 부드럽고 상냥하게 단련시키고자 했던 제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 매개체는 자신의 여정을 지속하는 듯 보였죠. 그리고 시드니에서와는 다르게, 이번 <사자의 꿀>에서 저는 여러분 중 그 누구와도 물리적으로 근접하지 못했기에 이 매개체가 변이하거나 변형되려고 할 때, 알맞게 대응하며 그 움직임을 휘저어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여러분께 보내드린 일종의 협약서이자 제안서의 성격으로 작성했던 편지가 있었지요. 편지에는 작업에 대한 몇 가지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편안함을 찾아봅시다. 우리는 항상 곁에 있는 모두와 대화 중입니다. 우리의 작업은 참음성이 아닌 지속성에 대한 것입니다. 작업의 전제 조건이나 저의 예술가적 권위는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기꺼이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각자가 수행하는 독서의 조건은 모두 독특하며 각기 다른 어려움, 불평등, 특권을 갖게 됩니다. 공공장소는 예측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허락없이 찍히거나 그 이미지가 배포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노동에 대해 알려진대로 시간당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책은 의도적으로 선택됩니다. 책임감을 나눠요. 이 오브제는 우리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 자본의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전환에 대한 기록이 됩니다. 이 작업은 즉흥적입니다. 조건은 항상 변화하며 우리는 언제나 변수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즐거움을 얻어주세요. 마음을 편하게 가져요.

되돌아보니 이 조건들은 작업의 매개체를 안정화시키려는 시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속한 작업이 단단하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여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택한 책을 서울시립미술관이라는 주어진 환경의 분위기와 전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UN/LEARNING AUSTRALIA>의 작품들 속에서 읽어나갈 때, 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거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거나 여러분이 선정한 책에서 얻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없었지요. 저는 여러분의 불편함 혹은 감사함, 짜증 혹은 기쁨을 목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택한 책이 여러분의 무릎 위에 놓여진 모습이나 여러분을 조용히 지지하고 있는 혹은 피부에 닿으며 거슬리는 양털러그(저는 한 번도 만지지 못했던),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러나 끈기 있게 전시장의 경로를 만들어냈던 의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시 관람객들을 마주할 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더 많은 개입 혹은 질문에서 여러분 스스로(그리고 여러분의 책)를 보호하려

토요일 독자 전영규는 문학 평론가로, 애정하는 텍스트를 어떻게 하면 많은 이들에게 더 아름답고 특별하고 사랑스럽고 멋지게 알릴까 고민하는 독자이다.

앤 헬렌 피터슨, 박다솜 옮김, 『요즘 애들』,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21. 브라이언 헤어-버네사 우즈, 이민아 옮김, 『다정한 것이 살아 남는다』, 파주: 디플롯, 2021. 사사키 아타루, 안천 옮김, 『이 치열한 무력을』, 서울: 자음과 모음, 2013. 최재천, 『호모 심비우스』, 서울: 이음, 2022. 임솔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 서울: 문학과학지성사, 2021. 허영만, 『꿀 1: 얼굴을 보고 마음을 읽는다』, 서울: 위즈덤하우스, 2008. 황정은, 『일기』, 서울: 창비, 2021. 리베카 솔닛, 노지양 옮김,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인가: 마투 운동에서 기후위기까지』, 서울: 창비, 2021. 박서련, 『더 셉리 클럽』, 서울: 민음사, 2020.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뉴사우스웨일즈 미술관 카페에서 존 카더와 마주 앉았을 때 나누었던 그의 말들이 제게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라며 운을 떼었죠. '사막은 그 자체로도 너무 뜨겁고 건조했어요. 모래 언덕이 솟아오르고 낙하하기를 반복했죠. (...) 갑자기 덩치 큰 사자가 그 남자 앞에 으르렁거리며 나타나요. (...) 남자는 사자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죠. 사자는 죽었고 남자는 마을로 다시 길을 떠나요. (...) 그는 거대한 사막을 건너면서 사자를 죽였던 장소를 다시 마주하게 돼요. 사자의 살은 썩고 부패하여 몸통만 남겨져 있었죠. (...) 황금빛의 짙짙한 꿀이 사자의 사체 속 벌통과 꿀 웅덩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 그는 적나라한 뼈 사이로 손을 뻗어 황금빛 꿀을 한 움큼 퍼내요.'

저는 김무영 님께 그가 게시했던 '힘없는, 풀이될 수 없지만 생성적이면서도 전염적인'이라는 네 단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받은 답장은 다음과 같아요. '저는 종종 당신이 서울에서 온 택배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 책에 접힌 귀퉁이들과 당신에게는 영원히 풀이될 수 없는 밑줄들을 살펴보는 상상을 하곤 해요. (...) 당신은 풀이를 시도하고 그들은 당신의 풀이를 기다리죠. 그러나 무언가가 당신에게 전해진다면 그것은 거꾸로 매달린 암호일거예요. 그럼에도 당신은 계속해서 한 명 한 명이 남긴 접힌 귀퉁이와 밑줄을 해독하는 수밖에는 없었죠.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남겨진, 그러나 영 소화할 수 없는, 말하자면 혼란스러운 찌꺼기들이 되겠지요.'

일요일 독자 이서하는 시인이자 예술교육가로, 십년 일기를 적으며 역사와 가정, 환경과 여성,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독자이다. 주디스 버틀러, 김용산, 양효실 옮김,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서울: 창비, 2020. 살럿 퍼킨스 길먼, 임현정 옮김, 『내가 깨어났을 때』, 서울: 궁리, 2020.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외 14명, 파리 리브루 엄음, 이주혜 옮김, 『모든 빗방울의 이름을 알았다』, 서울: 다른, 2021. 마리커 튀카스 레이네펠트, 김지현 옮김, 『그날 저녁의 불편함』, 서울: 비채, 2021. 루트 암만 외 2명, 박경희 옮김, 『내면의 그림』, 서울: 뮤진트리, 2021. 최은미, 『눈으로 만든 사람』, 파주: 문학동네, 2021. 박서련, 『더 셉리 클럽』, 서울: 민음사, 2020.

창작동인 겸은 이소연, 이서하, 주민현, 전영규, 네 명의 젊은 여성 시인과 평론가로 구성된 동인으로, 페미니즘, 기후위기 등을 명랑하게 이야기하는 시와 평론을 창작해 왔다.

볼들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매개체 너머로 순간 순간 연결되었고, 우리의 이야기를 손가락 사이로 흘러보내며, 우리를 지탱하고 집어삼키는 이 꿀을 계속해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내려간 몇 시간, 며칠, 몇 달, 그리고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한 이후로 이 매개체를 이루고 있는, 끊임없이 증식하는 달콤하고 끈적끈적한 이 복잡한 매개체에 대한, <사자의 꿀>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진심을 담아, 아가사 드림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카페에 앉아 따뜻한 음료를 마시거나 여러분의 독서는, 또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한지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된 <사자의 꿀>이 마무리되어 갈 때 즈음, 독자 여러분 중 한 분인 김무영 님께서 사자의 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작업에 대해 느낀 점을 '힘없는, 풀이될 수 없지만 생성적이면서도 전염적인'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아주 강한, 묘하게 낯익은 낯섦(uncanny)을 느꼈습니다. 이는 마치 작업이 지닌 매개체와 그 모든 불안정함, 작업에 내재되어 있는 상반되는 감정들이 제게 다시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무영 님은 분명 자신의 독서 경험에 대해 묘사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작업이 진행되면서 느낀, 시간을 더 돌려 맨 처음 커미션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느꼈던 감각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뉴사우스웨일즈 미술관 카페에서 존 카더와 마주 앉았을 때 나누었던 그의 말들이 제게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라며 운을 떼었죠. '사막은 그 자체로도 너무 뜨겁고 건조했어요. 모래 언덕이 솟아오르고 낙하하기를 반복했죠. (...) 갑자기 덩치 큰 사자가 그 남자 앞에 으르렁거리며 나타나요. (...) 남자는 사자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죠. 사자는 죽었고 남자는 마을로 다시 길을 떠나요. (...) 그는 거대한 사막을 건너면서 사자를 죽였던 장소를 다시 마주하게 돼요. 사자의 살은 썩고 부패하여 몸통만 남겨져 있었죠. (...) 황금빛의 짙짙한 꿀이 사자의 사체 속 벌통과 꿀 웅덩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 그는 적나라한 뼈 사이로 손을 뻗어 황금빛 꿀을 한 움큼 퍼내요.'

저는 김무영 님께 그가 게시했던 '힘없는, 풀이될 수 없지만 생성적이면서도 전염적인'이라는 네 단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받은 답장은 다음과 같아요. '저는 종종 당신이 서울에서 온 택배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 책에 접힌 귀퉁이들과 당신에게는 영원히 풀이될 수 없는 밑줄들을 살펴보는 상상을 하곤 해요. (...) 당신은 풀이를 시도하고 그들은 당신의 풀이를 기다리죠. 그러나 무언가가 당신에게 전해진다면 그것은 거꾸로 매달린 암호일거예요. 그럼에도 당신은 계속해서 한 명 한 명이 남긴 접힌 귀퉁이와 밑줄을 해독하는 수밖에는 없었죠.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남겨진, 그러나 영 소화할 수 없는, 말하자면 혼란스러운 찌꺼기들이 되겠지요.'

꿀과 혼란스러운 찌꺼기의 변이, 접힌 책장 귀퉁이와 암호들, 애정과 전염, 저자성과 위임, 일시적인 유예로서의 지속적인 독서, 선물과 부담을 모두 견인하는 불안정한 매개체.

여러분의 손이 쥐었던, 눈과 가슴과 마음으로 펼쳤던 책들은 이제 제 스튜디오에 고요하게, 그러나 작업의 처음부터 쪽 동행했던, 이 양면적인 매개체에 의해 유예된 채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역시도 유예된 채로 있었지요. 제 신체와 소리, 불안과 모순도 함께요. 여러분이 독자로 참여했던 시간동안 같은 매개체가 여러분을

불들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매개체 너머로 순간 순간 연결되었고, 우리의 이야기를 손가락 사이로 흘러보내며, 우리를 지탱하고 집어삼키는 이 꿀을 계속해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내려간 몇 시간, 며칠, 몇 달, 그리고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한 이후로 이 매개체를 이루고 있는, 끊임없이 증식하는 달콤하고 끈적끈적한 이 복잡한 매개체에 대한, <사자의 꿀>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진심을 담아, 아가사 드림